



한다면 한다! 독심의 축평인, 총복지원 남건 팀장!

고객홍보팀

내가 인터뷰할 대상이 되나,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나.

[KAPC 이야기](구. 만나볼란)를 통해 인터뷰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힘들어 식은땀을 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남건 총복지원 평가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정했을 때도 걱정은 여전했다. 다만 기대의 싹이 컸다. 2015년 7월, 지원으로 발령받기 전 본원에서 보고 들은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 아니고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성향이라 짐작됐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껏 조심스러워하며 물려서던 그를 붙잡고 2016년 우수직원상(총합) 표창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려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요청하는 것이다. 배경을 설명하니 고민 끝에 오케이. 그 뒤론 주저함이 없다. 어쩌면 섭외과정도 딱 그 다운지.

남건 팀장은 1993년 입사 이래 총 24년이라는 근무 연수 중 10년을 본원에서 지냈고, 그중 대부분을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노동조합에 몸을 담았던 시절도 있다. 그래서인지 기관의 오늘을 걱정하고 미래 준비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본인이 할 이야기를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온 그는 수시로 그 내용을 체크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기획팀장 4년 반 하면서 는 것이 말발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해야 했고, 상부기관에 보고 할 일도 많았다. 신배들을 보며 배우기 시작해 해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쌓아 어떤 일을 할 때면 그 결과가 미칠 영향까지 내다보려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를 해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가 우수직원상을 받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기획팀 지장으로 5년, 팀장으로 4년 반 근무하며 축평원 경영의 틀을 잡은 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전략기획팀 처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축평원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으로 편입됐는데, 이후 하나둘 경영의 옷을 입으며 공공기관으로서 품격을 갖추게 됐다.



“그 전에는 성실하게 판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 경영평가 대상이 된 이후로는 국가가 부여한 미션을 완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내부 직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됐다. 아식은 자리 잡혀가는 과정이리 보지만, 그래도 10년 사이에 직원들의 뜻을 모아 비전과 미션·핵심가치를 만들고 지금과 같은 전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축평원에 경영이 그러했듯, 그도 경영이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평가사로 지원에 근무하다가 본원에 들어온 후 생소한 용어들 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법까지 다시 배우는 심경으로 공부하며 일했다고 했다.

“젊을 때엔 당장 내일부터 여기로 가려고 발령장을 받는내도 가방에 하이바(헬멧)와 판징 장비를 넣고 가볍게 갔다. 젊은 열기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본부 발령받았을 때는 중압감이 컸다. 생소한 일에 이해관계자 대상 업무도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 그래도 경영과 판징 중 뭐가 더 좋은지를 고를 순 없다. 어떤 업무도 일단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다만 요샌 나이가 있으니 젊은 직원 따라가기는 어렵더라.(웃음)”

“지원에 오니 이해관계나 갈등이 얽힌 상대를 대할 일이 적어 마음은 편하다.”는 그는 요즘 지원 내실에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팀워크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장업무는 팀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일이 착착 돌아가는 데다가 지원은 구성원들이 다 흩어져 있어 현장 간 소통과 직원들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사적 상황을 살피며 걱정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요즘엔 지원·본원 할 것 없이 도전정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까 걱정이 된다.”며 “특히 젊은 직원들이 더 도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기획으로 내부 직원의 인본 탐방을 생각하고, 솔직히 ‘왜 상을 받게 됐을까’하는 궁금증으로 시작한 인터뷰였다. 그런데 ‘마음 편하다’면서도 인터뷰 끝내고 일어서는 순간까지 걱정을 이어가는 그가 어쩌면 정답을 제시해 준 것 같다. 당연하지만 새삼스러운 “모든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 ☺



남건 팀장을 보는 이 한 컷

팀워크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던 그는 그 결과물로 다양한 썸체가 풍성하게 자라난 텃밭을 자랑했다. 외부 건축 예정지지만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활용해 보자는 지원장님 제안에 따라 직원들과 합심해 심고 가꾼 것이라고 했다. 직무교육센터장이나 이력팀장이 수시로 팔 걷고 나서 제조작업을 한다는 말은 충분히 자랑할 만했다. 그리고 “좀 따줄게, 기념으로 가져가라.”던 그는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찌는 듯한 날씨에 장갑과 가위를 꼼꼼히 챙겨 나섰고,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상추부터 썩듯, 겨자잎까지 결국 한 세트를 해냈다.